

바다 보양식 ‘전복의 굴욕’... 공급 과잉에 가격 반토막

지난달 말 1kg 평균 2만 9567원
2014년 5만3236원 比 55.5% ↓
생산량은 2015년 比 59.1% 늘어



/픽스타

귀하다귀한 대접을 받던 전복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소비량이 제자리를 걷는 동안 공급량이 넘쳐나면서 가격은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어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10마리, 1kg 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지난달 말 평균 2만 9567원을 기록해 3만원이 무너졌다.

평균 산지가는 2014년 5만3236원, 2015년 4만4750원, 2016년 3만9451원, 지난해 4만1809원이었다. 가격이 높았던 2014년과 비교해 55.5% 수준에 그친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1월 3만6800원을 기록한 뒤 지속해서 최저가 행진을

보였다.

전복은 산란기 전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3~5월에 집중적으로 출하돼 공급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반등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전남 전복 생산량은 1만5933t

으로 2015년(1만12t)보다 59.1%나 늘었다.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1만8000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양식 면허는 지속해서 늘었고 집단 폐사의 원인이 됐던 큰 태풍,

적조도 없어 바다 상황이 좋았다.

반면 국내 소비세는 제자리에 머물렀으며 한때 수출이 증가했던 중국도 내수 시장 수급이 안정되면서 수출 판로도 막혔다.

복잡한 유통 구조 탓에 고작 1천~2000원 내려간 가격을 접하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는 꿈쩍하지 않는다.

그나마 25마리에 1kg 나가는 삼계탕, 해물탕용 작은 전복들만 꾸준히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생산 원가도 보장받기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초기 금융비용을 안고 양식을 하는 경우 이자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수산 당국은 뒤늦게 신규 면허를 제한하고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적용 품목에서 전복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수급 조절에 나섰다.

전국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도에서는 대대적인 판촉 행사가 시작됐다.

완도군은 지역별 향우회, 정부 기관·단체, 주요 공사·공단에 공문을 발송해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요청했다.

GS리테일, 롯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온라인 판매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전복을 팔고 지난 1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효한마당 행사 등에 간이 직판장을 열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완도군과 손잡고 전국 모든 점포에서 완도산 전복을 팔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규 면허 제한 등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손질 판매 등 소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해 생산·유통·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전남개발공사 소외계층 기부실적 계약평가 반영

전남개발공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실적을 계약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전남개발공사는 15일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기존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계약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정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 소외계층 기부실적을 우대하기로 했다.

제도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협상으로 이뤄지는 계약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이미 도입됐다.

다음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에서 계약 전년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 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공사·용역·물품 등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을 신뢰성 심사에 반영한다.

기부실적은 기업 매출액 대비 0.04%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지난해 전남개발공사 계약실적 기준으로 연간 279억원의 기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전남개발공사는 하반기부터 중앙 부처 건의 등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광완 전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내 시설에 실질적인 기부 효과나 나타나도록 가점 배정 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고 기부 문화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보성군 ‘별교꼬막 인공치패’ 생산 순항

보성군에서는 꼬막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치패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성군은 다양한 패류 치패생산을 위해 건립된 별교꼬막종묘배양장에서 겨울철 꼬막모패를 120일 정도 관리해 지난 4월말 1차 부화를 실시해 유생 2억마가 성공적으로 부화됐고 5월 10일 2차 부화로 유생 20억마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도 6월 중순까지는 유생 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화된 유생이 착저하여 치패로 성장되면 오는 8월말까지 참꼬막 치패 100kg를 중간육성장에 공급한다.

1.5mm내외의 치패 100kg를 중간육성장에서 키워 1.5cm내외인 종패가 되었을 때는 100톤이 생산된다. 3년 후 먹을 수 있는 성패로 자랄 경우에는 500톤의 생산이 예상돼 약 60억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별교꼬막종묘배양장’을 지난해 6월부터 직영해 오면서 자원재생과 어민 소득창출을 위



별교꼬막 인공치패

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을 겸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꼬막산업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꼬막뿐만 아니라 맛, 가리비 등 각종 패류치패 생산에도 적극 매진하여 보성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패류생산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를 점유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패류산업의 다각적인 개발용역 추진 등으로 패류의 브랜드화·산업화·규모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지난해 보성다향대축제에 참석한 외국 관광객들이 녹차밭에서 햇차를 따고 있다.



“보성다향대축제 ‘차 소풍’ 다녀가세요~”

차문화 체험·전시·경연 등 다채
해안 투어·썩잡기 체험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제44회를 맞이하는 보성다향대축제는 ‘차소풍’이라는 주제로 관광객 맞이에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차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을 과감히 없애고, 차를 쉽고 개성 있게 즐길 수 있는 소풍같은 축제라는 콘셉트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차문화 축제인 다향대축제는 차문화 체험·전시·경연, 차마켓 등 8개분야 5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와 축제의 대중화를 이끌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이색적인 전시체험 공간인 ‘차산업관’을 신설하여 보성의 차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 광장에는 가족놀이시설을 만들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꾸몄다.

‘티아트관’과 ‘티푸드관’에는 아름다운 테이블웨어와 녹차음식을 전시하여 차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광객의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햇차만들기’ 체험은 작년보다 뒤음솔이 13개가 늘어난 총 34개로 확대 설치하고, 차밭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차밭 쉽터도 마련된다.

특히, 청명한 달빛 아래 광장무대에서 펼쳐질 ‘달빛차회’는 지난해보다 횟수를 늘려 3일간 운영되며, 보성차인들이 주축이 되어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북측차밭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차 매니아들의 낭만과 개성있는 찻자리인 ‘월인천강 찻자리’가 진행된다.

아련한 동심의 세계로 이끌 ‘순금차 잎 보물찾기’와 ‘스마트폰 축제 스탬프

투어 앱’ 등 이색적인 이벤트가 진행되어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차박물관 광장에는 녹차로 만든 비누, 녹차 인절미, 녹차 초콜릿, 녹차 뷰티케어 등 젊은 층과 외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공간이 구성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남도바닷길 회천면 근지마을에서는 아름다운 득량만 해안투어와 재미있는 썩잡기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차밭과 더불어 갯벌에서의 즐거움도 함께 선사할 계획이다.

주병석 축제추진위원장은 “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은 마을마다 차를 뒤는 훈김과 차향이 날리 퍼지는 시기이다”며, “싱글러운 5월 가족나들이 장소로 인기만점인 다향대축제장에 방문하여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m8527188@

평화통일 ‘청소년 랩 콘테스트’ 열린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전남 진도군에서 평화통일을 주제로 ‘전국 청소년 프리스타일 랩 콘테스트’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가 주관한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남북 평화통일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친숙한 랩(rap)을 소재로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도록 했다.

특히 처음 개최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말까지 경상, 전라, 경기,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충청, 광주, 울산, 강원 등 전국에서 개인과 단체 명의로 무려 100여개의 작품이 접수돼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후 대회 홈페이지에서 이들 작품에

대한 조희수와 추천수를 집계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작품으로 20개가 최종 선정됐다.

본선 행사는 19일 오후 4시부터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야외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시상은 ▲1위 의장(대통령)상과 상금 100만원 ▲2위 민주평통 사무처장상과 상금 50만원 ▲3위 민주평통 부의장상과 상금 30만원 ▲인기상 2명(상금 20만원) ▲참가상 10명(상금 10만원)이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